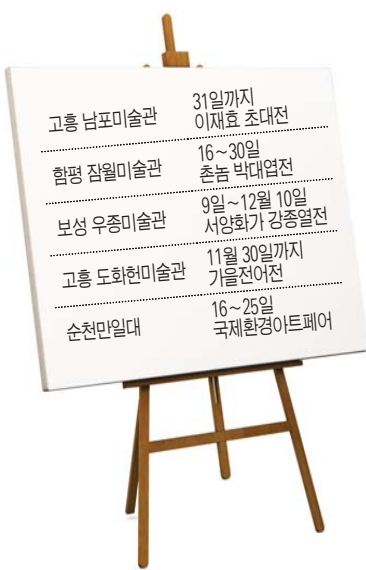




미술관에서 만나는 가을. 길쭉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사골길을 걸어 미술관에 가보자. 그곳에 노랑과 붉은 단풍 보다 고운 그림이 내걸렸다. 전남지역 미술관들이 풍성한 가을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고흥 남포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나무와 못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조각가 이재효의 초대전을 연다. 그는 나무나 못을 덩어리로 엮어놓고 불인 후 자르고 깎아서 공이나 도넛 모양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 돌, 못, 볼트

등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질감과 형상을 최대한 살린 작품을 발표한다. 재료가 가진 에너지와 미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고, 재료들 사이의 빈 공간에서는 동양화의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원기둥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무를 붙이고, 겹게 태운 나무표면에 굵은 못을 박아 휘고 연마해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했다. 문의 061-832-0003.

함평 잠월미술관은 오는 16~30일 아름다운 남해의 풍광을 사진에 담은 '춘늬 박대엽'전을 연다. 박대엽 사진 작가는 경남 남해의 아름다운 미조항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바다 풍경과 어촌의 정취를 영글에 담고 있다. 짧은 시절 일등항해사로 대서양과 태평양 등을 돌아 다니며 작가의 꿈을 키운 이색 이력을 가진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새벽녘 출항하

는 고기잡이배와 석양이 아름다운 미조항 등 남해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해가 저무는 바다 풍경과 일을 하는 어부들의 고단한 삶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작품들이다. 문의 070-8872-6718.

보성 우종미술관은 9월~12월10일 서양화가 강종열의 화사한 동백꽃 그림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동백꽃을 주제로 강씨는 안정된 구도와 색감으로 형상화한 신작을 선보인다.

선명한 색과 힘 있는 붓 터치로 동백의 붉은 빛을 강조했고, 나뭇잎에 스며든 은은한 햇빛을 능숙한 화법으로 표현했다. 문의 061-804-1092.

고흥 도화천미술관은 오는 11월30일까지 국내 작가 40여명을 초청한 '가을전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종래·구정희·김정연·류재일·문명호·이근표·이성환·임수준·장안순·장용림·오혜경·

박일정·강행복·박선주·정봉진·위선복·정상인씨 등이 참여해 회화, 조각, 사진 등을 선보인다. 문의 061-832-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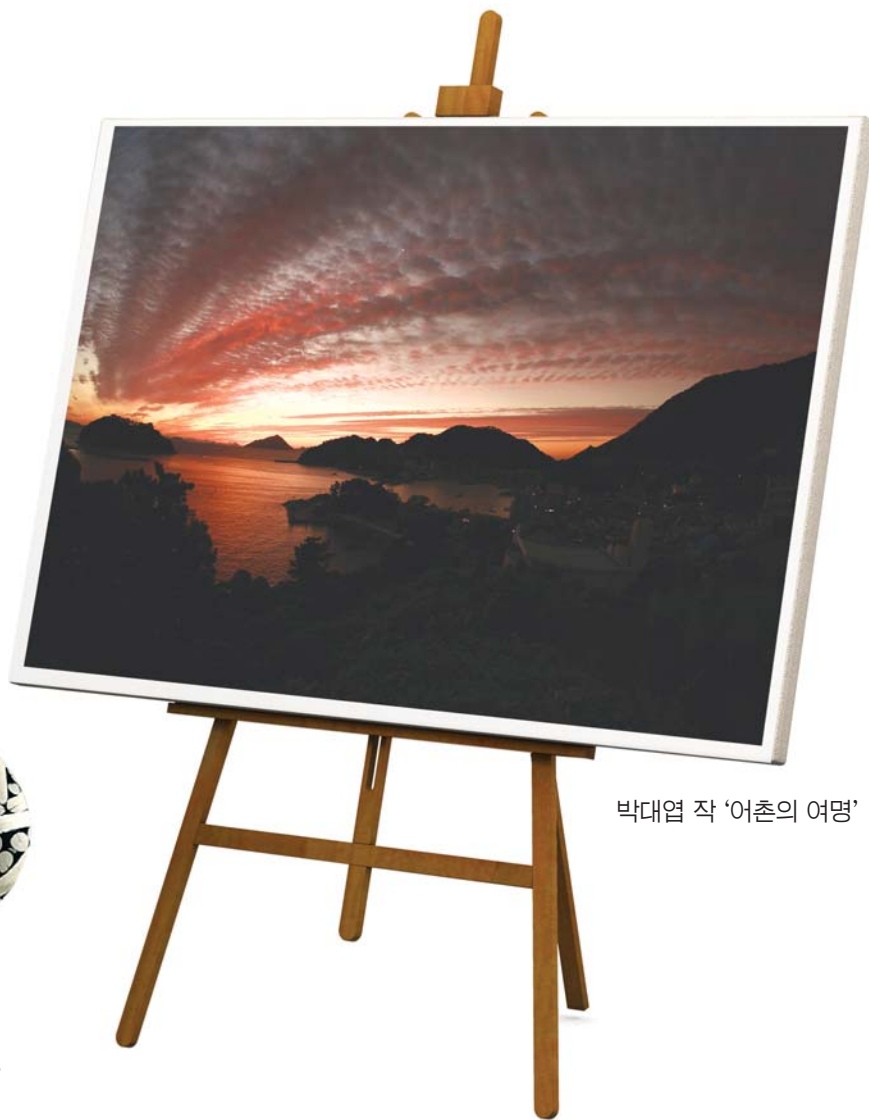
세계 5대 연안 습지이자 '하늘이 내린 정원'으로 불리는 순천만에 펼쳐지는 아트페어도 볼 만 하다. 오는 16~25일 순천만 일대에서 국내외 작가 169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2010 순천만 국제환경아트페어'가 열린다.

민경갑·하종현·조방원·정도준씨 등이 참여하는 한국화단 특별초대전과 중국의 왕지에 등 20여명의 외국 작가가 참여하는 해외초대작가전이 펼쳐진다. 또 순천만 30년 역사사진 전도 곁들여지고, 정신일·김현숙·전운정씨 등이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창작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도 있다. 문의 061-753-910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재효 작 '나무 구'



박대엽 작 '어촌의 여명'

2010 노벨문학상 페루 출신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부패·폭력에 맞선 남미대표 저항작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페루의 대표적인 저항 작가이다.

1936년 페루의 아레키파에서 태어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저널리스트, 교수 등을 지냈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이색적인 작가. 16세에 문단에 첫선을 보인 그는 1963년 레온시도 프라도 군사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도시와 개들'을 발표하여 작가로서 위치를 굳혔다. 외부와 단절된 군사학교를 배경으로 시험지 유출 등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이에 대한 학교측

의 대응 과정을 통해 위선과 도덕적 부패, 폭력으로 얼룩진 페루의 정치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그는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혼용한 다양한 실험정신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기법을 시도했다. 그는 또 소설뿐만 아니라 희곡·평론·수필 등을 섭렵했으며 1995년 에스파냐어권에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인 세르반테스상을 받았다.

한국에는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1, 2', '리고베르토의 비밀일기' '새엄마 찬양' 등이 번역돼 나와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비엔날레 내달 1일 '고은 시인의 날' 행사

고은 시인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좌절됐지만 낭보를 기대하며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추진했던 '고은 시인의 날'(11월1일)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재단은 고은 시인의 연작시 '만인보'를 제8회광주비엔날레(11월7일까지)의 주제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가

노벨 문학상 받기를 기대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인지도와 위상이 덩달아 올라가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은 시인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초청해 관람객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특강을 듣는 '고은 시인의 날'을 추진했었다. /오광록기자 kroh@



참고운 소리단, 친선교류음악회

日 아케노보합창단과 오늘 전남대 연주할

광주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구성된 참고운소리단(회장 차주원·사진)이 일본 도쿄 아케노보합창단과 친선 교류 음악회를 갖는다. 8일 오후 6시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

이날 공연에서 참고운소리단은 '오빠 생각', '산촌', '추심'을, 아케노보합창단은 '고향을 떠나는 배', '황성의 달' 등을 선사하며 두 팀이 호흡을 맞춰 '고향의 노래'와 '모미지(단풍)',

'가을'을 선사한다. 또 꿈을 품은 메아리 합창단이 찬조출연 '도라지' 등을 선사하며 소프라노 정현주씨가 오페라 '카르멘' 중 '나 이제 두렵지 않네'를 부른다. 일본 아케노보 단원들의 플루트와 트럼펫 연주도 이어진다.

지난 2003년 창단된 참고운소리단은 매년 정기공연과 무료 음악 공연을 통해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여성합창대회 분위기 '업'

9~10일 한미음시민축제

제3회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18~19일 광주문예회관)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한마음 시민축제'가 열린다.

(재)광주공연예술재단은 9일과 10일 광주 무등산 증심사 입구 등 시내 곳곳에서 광주지역 합창단과 연주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개최한다.

9일 오전 10시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는 CNS금관5중주단, 사랑의 부부합창단이 '나팔수의 휴일', '눈이 큰

아이', '렛 잇 비' 등을 들려주며 이어 오후 3시 롯데마트 월드점에서는 하모닉스여성합창단, 광주아버지합창단, 광주서구역여성합창단이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행복한 그리움' '어머나' 등을 들려준다.

10일 오후7시에는 수완지구 호수 공원에서 공연이 열린다. 광주CBS여성합창단과 광주여성합창단, 광주북구합창단, 성악가 구제창씨 등이 출연, '사랑하면 할수록', '벚노래', '참 좋은 말' 등을 선사한다. 문의 062-511-1260. /김미은기자 mekim@

낮설지만 순수한 바이올린의 선율

양새미 무반주 독주회

11일 유·스퀘어문화관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회가 열린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씨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여는 개인 발표회는 피아노 반주 없이 온전히 바이올린 선율로만 관객들과 호흡하는 연주회다.

연주곡목은 바흐의 '파르티타 3번' 전곡과 유진 이자이의 '소나타 2번'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0번'이다.

눈에 띄는 곡은 전남대 정현수 교수가 작곡한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환상곡'이다. 오래된 고전음악 뿐 아니라, 요즘의 감성을 담은 현대음악을 꾸준히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양씨가 특별히 선택한 레퍼토리다.

호남예술제에서 초·중·고 시절 모두 최고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두각을 나타냈던 양씨는 광주



예고 재학중 호주 퀸즐랜드 국립 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조기 입학했다. 이후 미국 신시내티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6년 귀국후 광주 전남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모교인 광주예고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양씨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음악회와 실내악 연주에 더 관심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을 읽자!

『김대중 자서전』 독후감 대회

지금, 이 시대에 김대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분단, 군부독재,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치며 살아온 김대중의 삶과 투쟁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고스란히 관통해왔습니다.

『김대중 자서전』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과 공감의 지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중 자서전 독후감 대회에 참여하세요~

■ 참여대상 : 제한 없음 ■ 대회일정 : ~2010년 10월 20일(수) ■ 독후감분량 : 원고지 30매 안팎

■ 제출방법 : 우편 및 메일 접수합니다.

■ 상금내역 : 총 상금 500만원 ⇨ 1등 200만원(1명), 2등 100만원(1명), 3등 50만원(4명)

※ 더 자세한 내용은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김대중 자서전'을 검색하세요.

* 11월 초 '김대중 달력(2011~2012)' 과 '김대중 연설 동영상 DVD' 발매



김대중 지음
양장본 158x234mm
1권 708쪽 28,000원
2권 648쪽 27,000원